

칼럼

장기채 주필



천지에 순응한 노년의 지혜

옛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노년의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는데 있었다. 퇴계 이황(1501~1570)은 하루 두 끼만 먹었다. 반찬도 무, 가지, 미역뿐일 때가 많았다. 농암 이현보(1467~1555)는 임금이 수십 번이나 불렀지만 한 번 벼슬에서 물러난 뒤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요즘엔 노인부양세대를 화제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 노인요양 병원이나 노인 요양원 덕분에 대한민국 이혼율이 낮아졌다는지,

노후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지, 특히 자식이 사업하다 망하면 은 가족이다 망하게 된다는지, 이러쿵저러쿵 잡다한 말들이 오간다.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씩씩하기만 하다.

과거 효를 강조하는 유교 사상의 대가족 농경사회에서 벗어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거친 현대의 핵가족시대에는 더 이상 본인의 노후를 자식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것도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는 흔히 자식은 양적 개념이며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고 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인데 비해 지혜는 질적 개념이며 미래에 대해 하는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지식이 사실 인식인데 비해 지혜는 의미 각성을 의미한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같이 볼 줄 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간의 흐

름에 대해 알고 있다. 오래 살아도 싫어하지 않고, 짧게 살아도 더 바라지 않는다. 시간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찻다가 기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분복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간다. 세월은 육체의 활기를 빼앗아 가지만 지혜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지만 그래서 더 죽음을 무시할 수 있다. 짧은 여생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군사력으로 권력을 얻은 고대 아테네의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술론에게 “대체 무얼 믿고 자기에게 그토록 대담하게 반대하느냐”고 물었을 때 술론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노년을 믿고!” 그 또한 노년의 지혜 아니겠는가.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 하고를 할 겨를조차도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이제 큰 지혜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한 때 세계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결국 나이가 들에 따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지만 노년은 원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아지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하지 말아야 한다.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른 척 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옛날 노년의 지혜는 천지에 순응했다.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서 살았다.

社 說

주택연금 문턱 낮춰야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더니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가입 하한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 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내 중 정부를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단계에선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50

대 증반으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 만들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6세 구간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 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사가격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명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91 (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 평 호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완강기 사용법 꼭 알아두자

완강기란 건물 외부로 로프, 감속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탈출기구다. 종류는 일반완강기와 간이완강기로 나뉜다. 일반 완강기는 설치된 지지대를 이용해 연속사용이 가능한 반면 간이완강기는 지지대 없이 벽면에 고리걸대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고 일회성인 차이가 있다.

완강기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해 화재 등 비상상황 시 피난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돼 있다. 최소 25kg 이상의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고 최대 무게는 150kg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완강기 사용법을 잘 모르기에 간혹 완강기 이용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완강기 사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완강기 힘을 열고 안전고리는 지지대에 건다. 이때, 완강기 후크를 반드시 돌려 잠근다.

둘째, 안전벨트를 머리 위에서 겨드랑이 아래로 넣고 고정링을 가슴쪽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여 준다.

셋째, 아래를 확인 한 후 줄을 떨어뜨리고 안전에 있는 지지대를 참문 바깥쪽으로 내민다.

넷째, 몸을 밖으로 놓고 탈출한다.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때는 밧줄이 빠지지 않도록 팔을 내밀고 다리는 좀 벌려주는 것이 좋다.(완강기는 일반적으로 100킬로그램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1

초당 1미터의 속도로 내려간다) 사용법을 익혀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사용할 수 없다. 완강기함에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완강기를 따로 보관하는 등 완강기 비치가 제대로 안될 경우 절체절명의 순간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적발시 소방법에 의해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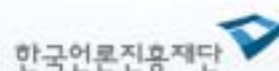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탈출수단인 완강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나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자.

진민호 / 화순119안전센터 소방장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